

生命의 근원은 물

깨끗하고 맑은 이런 물을 마시자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최초의 생명체는 태고의 바다 즉 물속에서 출현하였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물을 먼저 만드셨다고 하신다.

우리 인간도 태어나기 전 어머니 모태 양수속에서 인체조직이 형성되고 인간으로의 모습을 갖춘다. 또한 모든 식물의 씨앗들도 축축한 물기를, 지난 흙속에서 씩 피워 파랗게 돋아나는 것이다.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섭취해야 할까?

水道물은 化学药品으로 处理한 물, 끓인 물은 生命을 잃은 물 天然生水와도 같은, 자연原理 이용한 이온生水 마시면 좋아

소변이나 땀 등의 형태로 배설되는 수분의 양이 약 2.5ℓ라고 한다.

따라서 배설되는 양만큼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만 서로 제로의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일단 섭취한 물은 혈액에 의해서 전신의 세포를 순환한 후 신장으로 가서 하루에 무려 180ℓ의 혈액을 여과하도록 한다. 이것은 성인의 신체가 지난 총 40ℓ의 수분량을 감

언해 볼 때 4.5배나 되는 많은 양이다. 따라서 우리의 체액은 하루 적어도 4~5번 걸리어서 노폐물이 추출되고 세척되는 셈이다.

◆체내에서의 물의 역할

우리가 매일 마시는 한잔의 물은 입·위·장·혈액·세포·신장 등의 순서로 신체를 순환하면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대사작용을 높이며 ◆혈액과 조직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를 용해 이를 흡수

때까지 체내 순환하며 얼마나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

◆끓인 물은 죽은 물

끓이지 않은 물에는 용존산소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물을 끓이므로 해서 용존산소가 파괴되고 물은 활성을 잃게 된다. 또한 물속에는 인체에 유익한 갖가지 영양소 즉 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분 등의 각종 미네랄이 녹아 있는데 물을 끓이므로 해서 이것들이 모두 파괴된다. 따라서 끓인 물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물이 된다.

이것을 증명하는 예로서 물을 끊은 후 화분에 줄 경우 화초는 시들고 끓인 물을 식은 후 어항에 넣어주면 금붕어가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물론 물을 끓이면 물속의 대장균은 모두 사멸되겠지만 물 고유의 생명력 또한 파괴되어 버린다.

◆찬물이 몸에 좋다

2개의 수소(H)와 1개의 산소(O)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물분자(H₂O)는 온도가 높아질 수록 5개로 구성된 사슬모양이나 5각형 고리모형을 이루고 있으며 온도가 내려갈수록 6각형 고리모양이 많아진다. 이 6각형 고리모형의 물은 열용량이 크고 DNA, RNA 등의 생체분자들과 잘 어울려 생명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체분자 주위의 물은 6각형 고리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50~60대로 나이가 들면 세포안의 물은 구조성을 상실하고 생체조직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따라서 피부는 주름이 잡히고 거칠어지는 등 노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6각형 고리모양의 구조

성이 있는 물을 몸안에 넣어주면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게된다. 이 같은 구조로된 물은 과일속에 많이 되어 있고 또 보통물을 차게

냉각시켜도 많이 생겨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생

수를 마시는 것이 건강의 비밀

이라고 전명한 것도 모두 이러

한 것이다.

◆물은 가장 좋은 음식이다.

◆물은 절대량을 섭취해야 된

다.

◆물로도 암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고 1986. 10. 31 중앙일보

抗진정제, 흥분제와 같은 정신활성제를 이용한 새로운 암치료법이 베네수엘라의 한 암학자에 의해 개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센트랄대학교 이자 암학자인 푸아드 레친박사는 개발한 문제의 암치료법은 특히 과거 10년동안 5백여 명의 암환자들의 치료에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암퇴치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신경전달체(neurotransmitter)의 혼란을 바로잡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레친박사는 「연구결과 암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세포인 임파구의 혼란과 신경전달체의 혼란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됐다」고 밝히며 「抗진정제, 흥분제와 같은 정신활성제는 소량을 인체

精神活性剤로 癌치료

抗진정제 및 흥분제

베네수엘라 센트랄대 푸아드教授, 藥劑開發임상보고

10년간 癌환자 5백여명 臨床투여效果

이와관련 레친박사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새로운 암치료법을 이용해 대부분의 암환자들의 증세를 호전시켜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그 증거로 한 암환자의 상태변화를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해 11월 레친박사를 찾은 여성환자의 모습으로 당시 환자는 유방암 말기로서 오른쪽 유방이 암세포로 인해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졌으며 암세포가 간장에까지 번져 불과 2개월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찍은 사진은 환자의 병세가 많이 회복돼 유방의 크기가 정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레친박사는 현재 환자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증세도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연구단계에 있는 레친박사의 암치료법은 한마디로 뇌속에서 여러가지 신호들을 한 신경세포로부터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해주는 화학물질인

내에 투여할 경우 신경전달체의 불균형상태를 바로 잡아줄뿐 아니라 임파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레친박사는 실제로 소량의 신경활성제를 암환자에 투여한 결과 암세포가 줄어들거나 몇몇 경우에는 완전히 소멸됐다고 밝히고 이같은 치료법이 암세포제거수술과 병행된다면 치료효과는 더욱 뛰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레친박사가 이같은 암치료법을 발견하게 된 동기는 극히 우연한 일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1979년 폐암환자의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활성제를 복용시킨 결과 엉뚱하게도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 결국은 원래의 4분의 1 크기로 줄어든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레친박사는 정신활성제를 이용한 암치료법을 최근 카라카스에서 열린 中南美약학회의에 보고했는데 자신의 연구내용을 충정리한 저서를 이달안에 美國에서 출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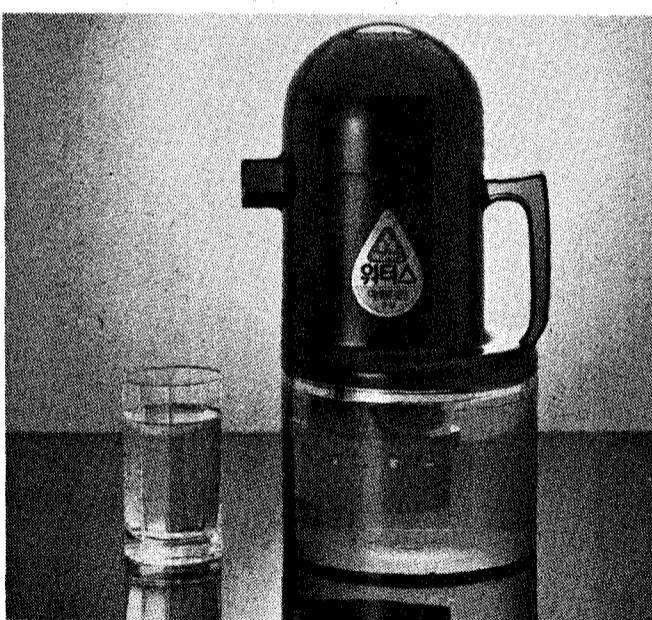
전무식 교수 이론발표함.

*물로도 당뇨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고 역시 전무식교수가 발표하였습니다.

*피부미용에도 좋은 물이어야 한다고 이 글을 쓴 이성원이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변비에는 물이 가장 빠르다고 또 이성원이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株式会社 워터스 資料제공



正会員=入会費1만원·年間会費2만원
特別会員=入会費10만원·年間会費12만원
 일반회원=入会費1만원·年間会費1만2천원
(입회시는 입회비 및 연간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8-2 (서대문우체국 6층 603호)
● 전화 = 392-4744

법인 한국성인병예방협회
会長 李文鎮

◆会費
協会사무처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
여하는 성인병을 가진자 또는 관심있는 일반국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8-2 (서대문우체국 6층 603호)

◆会員의 자격
1. 正会員=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는 성인병관계학자 및 전문가 또는 협회 발전에 기여 있는者
2. 特別會員=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自營者포함)의 長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普通會員=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 사업에 찬동하고 협회 사업에 자진참여하는 성인병을 가진자 또는 관심있는 일반국민.

◆事業
1.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도계몽 3. 성인병에 관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조사 및 기술의 평가 4. 성인병에 관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조사 및 기술의 평가 5. 성인병 진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운영 6. 성인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장증진에 관한 연구 및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에 따라 본회는 成人病의 예방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지도계몽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과 복지사회구현에 기여하는 바,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원入會안내